‘세월의 숲’이 ‘문화 숲’으로 울창해진다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해외편 〈20〉 뱅크아트 1929

요코하마=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뱅크아트 프로젝트는 요코하마의 근대건축물과 낡은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되살려내는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Yokohama)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뱅크아트 1929의 세번째 프로젝트인 ’뱅크아트 NYK 스튜디오‘ 전경. 〈사진제공=뱅크아트 1929〉

지난달 30일 요코하마 나카구 카이간도오리에 위치한 ‘뱅크아트 스튜디오 NYK(Bank Art Studio NYK)’.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색바랜 건물 외벽에 ‘동아시아의 꿈’이라는 큼직한 한글로 적힌 대형 플랭카드가 내걸렸다. 반가운 마음에 건물 입구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자 모던한 분위기의 포장마차가 눈에 띄었다. 다름 아닌 ‘동아시아 레스토랑’. NYK강을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선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전통음식과 차가 판매되고 있었다. 평일이었지만 많은 요코하마 시민들이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오래된 건물과 달리 역동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회화, 조각, 영상, 설치작품들이 방문객들을 맞았다. 공장폐유를 소재로 물질과 공간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하라구치 노리유키(일본)의 ‘사회와 물질’, 재활용품들을 사용해 거대한 악기로 재탄생시킨 퍼포먼스 그룹 ‘노리단’(한국)의 ‘Posco’ 등 30여 명의 작품들이 3층 건물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동아시아 꿈’은 지난 8월 1일 개막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부대행사. 1950년대 옛 요코하마의 우편선(郵便船)창고였던 NYK를 개조한 뱅크아트 스튜디오(대표 오사마 이케다)가 기획한 야심작이다. 얼핏 허름한 건물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시회가 열리게 된 데에는 뱅크아트 스튜디오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원래 해운회사 니폰유센(日本郵船) 소속 NYK 라인의 창고였던 이곳은 흉물로 방치돼 오다 지난 2005년 예술가들을 위한 9개의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특히 지난 2008년 현대미술축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주관하면서 세계 미술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뱅크아트 스튜디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에는 지정학적인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1929년 설립된 옛 후지은행.

근대건축물 많은 요코하마
‘창조도시’ 중장기 프로젝트
미술·건축·퍼포먼스·음악…
학교·출판·펍 등 아우르며
도시 곳곳 150여개 건축물에
‘문화 재생 거점공간’ 늘려가

사실 요코하마에는 ‘뱅크아트 스튜디오’ 같은 오래된 근대건축물이 많다. 그도 그럴것이 도쿄와 인접한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외국 문물이 가장 먼저 일본에 유입된 곳이다. 이런 배경으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양식의 서양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 게다가 요코하마는 도쿄와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주말을 즐기려는 도쿄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 가요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의 무대 답게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요코하마시는 2000년대 들면서 요코하마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중장기 프로젝트, 일명 ‘창조도시 요코하마’(Creative Yokohama)를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먼저 시내 전역에 산재한 낡은 창고와 오래된 공장, 빌딩들에 눈을 돌렸다. 한때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하려고 했던 근대건축물과 낡은 건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매입하기로 한 것. 요코하마시는 TF팀을 발족시키고 정책적으로 매입 ‘대상’들을 물색하던 중 도심 한가운데 빈 건물로 방치된 은행 2곳을 낙점했다. 1929년 건립된 제일은행과 후지은행이었다.

당시 요코하마시는 기증받은 두 은행을 문화적 재생의 시범케이스로 선택한 후 운영주체를 공개모집했다. 이때 선정된 2개의 단체가 2004년 3월 ‘뱅크아트’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후 죽어있던 은행건물을 예술로 되살려 냈다. 이들은 시가 제공한 건물을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스튜디오로 빌려주는 한편 각종 전시와 이벤트, 강좌를 개최했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활기를 되찾은 뱅크아트는 퍼포먼스와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 전시와 이벤트의 장, 일명 ‘뱅크아트 1929’로 새롭게 태어났다. ‘1929’는 은행의 건립년도 뿐 아니라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설립된 해이자 세계 경제대공황이 시작된 해로 ’경제위기를 예술로 극복하자’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뱅크아트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눈독’을 들이는 곳들이 많아졌다. 당시 예술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던 도쿄대는 옛 후지은행을 캠퍼스 대상으로 ‘찜’한 후 요코하마시에 임대를 제안했다.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해 오던 후지은행은 지난 2005년 1월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영상학과에 안방을 내주는 대신 젊은 예술가들로 도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뤘다.

‘뱅크아트 1929’ 사무국이 위치했던 제일은행 역시 갤러리와 아트숍, 카페, 펍(Pub), 서점 등 시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된 후 지난2009년 5월부터 ‘크리에이티브 시티 센터’로 바뀌었다. 매일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펍은 아티스트와 도쿄 예술대학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예술과 창작을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다른 곳에서는 느끼기 힘든 뱅크아트의 색깔을 보여준다.

뱅크아트 1929의 특징은 ‘시기와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150 여 개의 근대건축물을 재생시킨다는 계획아래 제2, 제3의 ‘거점공간’들을 하나씩 확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뱅크아트는 빈부를 떠나서 누구나 원하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현대미술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는가 하면,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고, 시와 주민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지역문화 창조의 중추적인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코하마를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만드는데 한몫한다.

연간 운영비의 10%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뱅크아트는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있고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콘텐츠제작 등으로 연간 8000만엔(한화 11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등 세계 40여 개국과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간 400여 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뱅크아트 스튜디오는 문화공간도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년에 300회 진행하는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뱅크아트가 요코하마의 브랜드로 자리잡게 된 비결은 민·관의 파트너십이다. 요코하마시가 운영비로 연간 8000만엔~6000만엔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만 할 뿐 간섭은 하지 않는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뱅크아트 디렉터가 관장하는 덕분에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뱅크아트를 이끌어 오고 있는 오사무 이케다 대표는 “뱅크아트 1929는 행정당국이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지향점에 맞는 민간 단체를 사업 추진 주체로 선정한 뒤 간섭은 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라며 “진정한 도시재생은 어린 묘목이 재목으로 자라는데 30년이 걸리는 것처럼 조급증을 버리고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 비전을 함께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kwangju.co.kr

옛 제일은행을 리모델링한 뱅크아트 내부 전시장.

지난 8월 1일 개막한 ’동아시아 꿈’ 기념행사.

일본작가 카와마타 타다시 작 ’카와마타 홀’.

현지 취재 섭외 및 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